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윤 은 하*

1. 서론
2.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와 배경
3. 공동체란 무엇인가: 공동체, 기억 공동체 그리고 기록 공동체
4. 공동체 아카이브와 사회적 함의
5. 결론

* UCLA 기록학박사, 현 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강사(eunhayoun@gmail.com).

[국문초록]

‘공동체’, ‘아카이브’, ‘기억 공동체’, ‘사회적 기억’, ‘문화적 증거’ 등은 지난 10년간 북미 기록학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다소 모호한 점이 없지는 않지만, 이 용어들이 유럽과 북미가 중심이 된 국제 기록학의 새로운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 그것들은 기록학의 연구 대상, 이론과 방법론, 의미와 가치, 나아가 인식론에 이르기까지 기록 관리와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록과 기록 관리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였고, 그 점에서 기록학계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성립 배경에 대해 소개하며,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면서, 기존의 기록관리 방법론이 공동체 기록을 관리하는데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둘째, 공동체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기록 관리의 대상이 되는 기록공동체의 범주와 특징에 대해 밝혔다. 셋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주제어 :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 사회적 기억, 기록 공동체, 도큐멘테이션 전략

1. 서론

정보공개법과 공공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무렵 한국의 기록학계는 변화를 겪고 있다. 1998년 이영남의 마을 아르페¹⁾라는 논제에서 시작된 민간기록에 대한 관심은 대중의 일상을 구성하는 기록들과 공동체와 지역의 기록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보공개와 거버넌스 등 기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이 문화적이고 역사적 역할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록관리가 기관의 경제적 효율성이나 합리성에 대한 가치를 넘어 좀 더 포괄적인 사회 전반의 시대적 가치를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영남이 제시한 풀무 마을의 생태적 기록관리²⁾, 박건홍의 일상 아카이브³⁾, 혹은 설문원의 로컬리티 도큐멘테이션⁴⁾에 대한 언급은 이러한 학문적 전환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의 관심의 전환은 1980년대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필두로, 북미에서 이루어진 노력과 일면 유사한 점이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기록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 되었고, 여러 시행착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학의 새로운 방향을 대변하는 흐름으로 정착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필두로 한 민간 기록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 공동체와 공동체의 기록에 대한 관심

-
- 1)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호, 2008, 한국기록학회, 221~255쪽.
 - 2) 이영남, 「마을아르페'(Community Archpe) 시론 : 이영남,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호, 한국기록학회, 2012, 2~31쪽.
 - 3) 박건홍,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호, 한국기록학회, 2011, 3~27쪽.
 - 4)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 연구』 32호, 한국기록학회, 2011, 103~150쪽.

으로 이어졌고, 이는 현재 민간 기록 관리에 대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고는 ‘다원화된 기록관리 운동’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둘러싼 학문적 배경을 논하고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현재 기록학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의 배경

2011년 박원순 시장은 건강한 공동체 건립을 서울시장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조건으로 공동체의 설립과 운영을 언급한 것은, 기존 서울시의 정치경제적 구상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 4월 15일 공포되고,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마을 만들기 사업 토대 구축, 주거, 복지, 문화, 경제 공동체 등 5개 시책 68개 사업에 1340억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서울시 정책의 실효성을 바라보는 데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고, 여전히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가 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체 현상에 주목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관한 관심은 미국과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북미를 비롯한 영어권 국가에서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학문적으로, 혹은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다. 20세기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전통가치의 붕괴와 파편화된 인간관계라는 불행한 상태로 인류를 내몰았는데, 공동체는 종종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떠올랐다. 미국의 사회학자 Oldenburg Ray는 2차 대전 이

후 미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과 물질적 부를 누렸지만,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로 말미암아 개인은 고립되고 파편화되었다고 언급했다.⁵⁾ 그는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문제의 급증간의 상관관계에 주목하며 미국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영국 정부 역시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발견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하나의 통로로써 공동체를 바라보았다. 이를 위해 12개 지역의 사회 빈곤 계층이나 소외 집단을 대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업을 시도하기도 했다⁶⁾. 이렇듯, 20세기 중반 이후 종종 공동체 운동은 어떻게 하면 보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리고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가 스스로의 역사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며,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호주 등지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는 더욱더 많은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공동체 운동에 비해, 기록학계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기록 관리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던 기록학계의 내적인 움직임에 연유한다. 언급했듯이, 아카이브가 역사적으로 사회 대중의 기억과 기록을 보존으로 하기보다는 특정 계층이나 권력의 기록만을 보존 대상으로 삼아왔다는 비난은 아카이브의 본질에 대한 재고를 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후 기록학은 아카이브가 사회적 산물로 그 시대의 가치를 초월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동시에 특정 기관이나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기록 관리의 가치는 사

5) Ray, Oldenburg, "The Problem in Place of America", in *The Great Good Place: Cafes, Coffee Shops, Bookstores, Bars, Hair Salons, and Other Hangouts at the Heart of a Community*, NY: Marlowe & Company, 1999, pp. 3~20.

6) Mander, David. "Special, Local and About U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chives in Britain", In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London, U.K.: Facet Publishing, 2010, pp. 29~47.

회 전체를 위해 설명책임성을 가지고 정체성, 사회 정의와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회전반의 기록화 작업을 달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980년대 제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패를 언급하며 사람들은 주제 선별의 자의성과 협업의 어려움을 그 한계로 말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아키비스트가 협업을 통해 사회 안전이나 주제들, 혹은 지역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재구성,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략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략을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선별과 수집에 대한 공통적 동의를 내릴 수 없었으며, 각각의 기관들도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이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게다가 지속적인 연구비 충당의 문제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동원하는 것 역시 쉽지 않았다.⁷⁾ 그러나 사실상, 이보다 더 크게 문제시되었던 것은 새로운 기록전통을 세우기 위해 수집된 기록은 기존 기록 관리방식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기록이라는 사실이었다. 민간에서 생산한 기록들은 그 내용과 형태 면에서 대단히 다양했고, 기존의 기록 관리는 다양한 공동체로부터 수집한 민간 기록들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기록관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록학계는 아래로부터의 기록 관리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돌렸지만, 곧 스스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에서 드러났듯이, 아키비스트가 민간 기록

7)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103~112쪽 ; Hinding, Andrea, "Inventing a Concept of Documentation",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80, 1993. pp. 168~178 ; Cox, Richard,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52, 1989, pp. 192~200 ; L. J. Hackman and J. Warnowblewett,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a Model and a Case—Study", *American Archivist* 50, 1987 ; Cook, Terry,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1992, pp. 181~191.

에서 어떠한 것을 모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전문가들은 합의를 볼 수 없었고, 오랜 합의 끝에 얻어진 결론일 지라도 여전히 그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누군가에게는 타당해 보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 다양한 대중의 삶의 경험은 그가 속한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서 무한히 확장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급적 차이는 문화적 차이로 이어지며, 세대별 또는 연령별 차이는 상이한 교육과 기술적 인프라에 의해 강화되고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낳았다. 남성과 여성, 전문직과 노동자, 지역별, 계층별, 능력과 관심, 경험과 교육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자신들을 규정했다. 종종 민간 혹은 대중이라는 범주는, 확실히 익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형의 불확실한 대상이었다. 무수히 많은 대중은 상이한 문화적 경험, 교육, 젠더, 계급, 세대에 걸쳐 있었고, 평범한 갑남을녀는 모래알만큼이나 많았다. 그들은 다양하고 상이한 가치체계와 문화적 패턴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모두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획일적인 개념적 틀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속에 들어 있는 무수한 결들은 대개, 상이한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종종 전혀 다른 기록의 생산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수많은 가치와 경험을 아우르는 대표적 대중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이 대중이 과거 그들이 생산해 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기록을 생산해 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기록 학자들을 더욱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기록학계를 난감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기록을 생산해 내는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어떤 집단은 개방적이고 더욱 더 잦은 소통을 통해 기록을 생산해 내었으며, 또 어떤 집단들은 숨겨지고 감추어진 채 은밀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록을 생산했다. 다른 집단은 대중적이고 친숙한 방식으로, 또 다른 집단은 대단히 낯선 방식으로 기록을 생산해 냈다. 민중의 기억은 종종 구술과 그림, 노래와 춤 등

으로 구전되는 경향이 있었고, 물론 가끔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도 했지만, 이는 그 형태와 모양에서 지배계급의 그것과 확연히 달랐다. 그들은 일기와 편지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엽서와 포스터, 구술과 구전, 노래와 춤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낸다. 그들의 기록은 종종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자유로운 형태로 유통되고 관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양한 유형과 내용들이 세대를 거치며 자유롭게 첨가되거나 삭제되기도 했다. 역사학자 전진성은 이러한 이유들로 민중의 기억들은 적절한 대변자를 찾지 못했고, 표류되거나 무시되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러나 민중들은 새로운 정치 구조가 등장하거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있을 때, 그들의 방식으로 항상 그들의 의견을 표시해왔다.⁸⁾ 이것들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억되었는데, 아카이브는 이러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형화되지 않은 채로 녹아있는 장소였다. 북미 흑인 공동체는 그 굴곡의 역사를 재즈를 통해 표현했고,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들은 종종 대담한 성적 이미지로 자신들을 설명하길 원했다. 일본계 미국인은 태평양 전쟁의 트라우마를 그들의 개인 일기에 고스란히 적었다. 물리학자 공동체는 복잡한 수식을 포함한 연구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기며, 미국 원주민들은 조상의 유골과 뼈조각으로 그들의 신성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었다. 공동체들은 자신의 기억을 재현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을 선택했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들은 민간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공동체들이 자신의 기억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또 왜 그렇지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는 대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들의 기록과 기억보존장치를 찾아낸다는 것을 불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아키비스트의 임무가 될 수 있는가. 다시

8) 전진성, 「기억의 정치학을 넘어 기억의 문화사로」, 『역사비평』 76호, 역사비평사, 2006, 452~284쪽.

말해 과연 이러한 것들을 기록이라 부를 수 있는가.

서구의 기록학은 오랫동안 기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왔다. 기록은 신뢰성과 무결성, 완전성을 가지는 것이었으며, 기록 관리의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고 나아가 상승시키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민간 기록의 등장은 오랫동안 학문적 논의를 기울였던 기록학을 다시금 개인 수집가의 고호적 취향으로 전락시키며, 무분별한 잡동사니를 다루는 분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어 보였다. 특히, 민간의 기록은 생산과 유통, 보존과 접근에 걸친 모든 과정이 불분명했고, 종이 기록의 특징에 기반을 두지 않은 새로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흔히 생산되는 구술 기록을 보면, 그것은 그다지 신뢰를 할 수 없는 기록으로 여겨졌다. 구술자는 불확실한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재배치하거나 과장한다. 때로는 축소하기도 하고, 대담자가 바뀌면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기도 한다. 구술자와 대담자와 불균형한 권력관계는 은폐되고, 주관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렇듯, 시시콜콜한 일상의 이야기가 하나의 서사 속에 놓이는 과정은, 완전성과 무결성, 진본성을 추구하는 문자 기록 중심의 국제표준이 상정하고 있는 가치와 상반된다.

민간 기록의 본질과 관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키비스트가 어떻게 기록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대단히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곧 무엇이 기록이고, 아카이브인지, 아키비스트는 누구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을 둘러싼 권력의 재조정, 그리고 역할의 재해석은 기록 관리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기존의 기록관리 패러다임 속에서 바라보는 민간 기록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신뢰할 수 없는 부차적인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간 기록은 항상 공공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 받았기 때문에, 민간기록 자체의 고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다. 점차

연구자들은 민간 기록을 기존의 공공 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보존할 수 있는가 혹은 공동체의 기록을 정부에서 생산한 기록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 혹은 ‘기록관리 원칙의 다원화’를 주장하기 시작했다.⁹⁾

그렇다면 왜 공동체 아카이브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주류 아카이브는 왜 민간의, 혹은 공동체의 기록을 모으는데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다. 북미는 전통적으로 문화 기관이라고 불리던 사회의 여러 기관에서 이미 민간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다. 미국의 주류 대학 내 도서관에서는 이미 스페셜 컬렉션이라 불리는 다양한 작가와 예술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개별 문건들, 사회 소수자의 특이한 기록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주립 아카이브에서도 자신의 주의 역사와 문화를 내포하고 있는 민간의 기록물에 대해 이미 많은 부분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름 난 정치가와 경제인, 변호사와 언론인 등 저명인사들의 개인 기록들은 이미 주립 아카이브의 컬렉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개별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사와 이미

9) Cook, Terry,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 2001, pp. 3~24 ;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997, pp. 17~63 ; Eastwood, Terry, and Heather MacNeil, eds,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Santa Barbara, CA: ABC-CLIO, 2010 ; Gilliland, Anne, Sue McKemmish, Kelvin White, Yang Lu, and Andrew Lau, “Pluralizing the Archival Paradigm: Can Archival Education in Pacific Rim Communities Address the Challenge?”, *American Archivist* 71, 2008, pp. 87~117 ; McKemmish, Sue, Anne Gilli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z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2005, pp. 146~174 ; Ketelaar, Eric, “The Difference Best Postponed?: Cultures and Comparative Archival Science”, *Archivaria* 44, 1997, pp. 142~148 ; Harris, *Verne Archives and Justice: A South African Perspective*, Chicago, Ill.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7 ; Yeo, Geoffrey, “Concepts of Record (1):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American Archivist* 70, 2007, pp. 315~143.

지에 대한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었고, 다양한 지방의 민속 박물관들은 그 지역 내에서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지방의 작품과 기록에 이미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많은 부분 민간의 기록 관리는 역사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행해지고 있는 듯 보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주류 대학, 그리고 다양한 문화기관들에서 일관되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기록의 수집 방식과 관리, 보존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철저히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이한 방식으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본질과 생산자, 이용자의 복잡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데 있었다. 대개 기관의 수집 정책은 기관의 사명과 임무, 그리고 스스로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기록들과의 연관성 하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별적 기관의 선별 기준은 기관전체의 기록을 일관된 방향을 이끌며, 이에 위배되는 기록들은 지속적으로 배제 시킨다. 의심할 바 없이 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대상 기관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록을 통해 그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주립 아카이브나 연방 아카이브, 그 밖의 주류 아카이브에서 수집하는 정부 정책에 관한 기록들은 철저히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수집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가 수집하는 민간의 기록, 구술이나 일기, 편지나 포스터 등 역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진정한 입장이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찬성, 혹은 적어도 암묵적 옹호를 내포한 기록을 중심으로 수집되는 경향이 있었다. Hinding은 그녀의 논문에서 미국 농림부 정책 분석을 통해, 정부 정책 평가에 대한 민간 기록 수집이 정부통계자료와 함께 정책의 성공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한에서 수집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민간 기록은 정책 수립에 관련된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수집되는 것이 아

닌,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증거로서 수집될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 내의 아카이브는 스스로의 목적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수집정책과 보존 방식에 따라 외부 민간 기록을 수집하고, 기관이 채택한 관리 방식에 따라 기록을 재정의, 재배열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록의 주관적이고 자의적 선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사실상, 대상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는 좀 더 근본적으로 기록의 생산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었다. 흑인에 대한 기록은 대개, 흑인 스스로에 의해 생산되기 보다는 정부에 의해 공공 기록의 형태로 생산되고 관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미국 주류사회는 흑인의 높은 문맹률을 문제시하며 그들이 기록을 남기는가, 혹은 기록을 남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과거 흑인은 자신의 기억을 텍스트된, 문자로 남기는데 서툴렀다. 그들의 대부분의 기억은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거나 구술되는 경향이 있었고, 구술로 남겨지는 개인의 기억은 텍스트보다 휘발성이 높았다. 그리고 대개는 적절한 시점에 기록으로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기록은 대개 백인들, 더 정확하게는 정부 관료에 의해 생산되었고 관리되었다. 문제는 오랫동안 미국 정부가 흑인을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1619년부터 노예무역이 금지된 1807년까지 약 150만 명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시장을 통해 미국 땅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흑인은 개인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의 대상이었다. 이후 20세기에 걸쳐 흑인은 계급적, 인종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 집단으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정부 감시의 대상이었다. 많은 경우 정부 관료의 행정 문서는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며 생산되었다. 그리고 이는 흑인 공동체가 스스로를 규정하고 이해하는 방식과 전혀 상반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는 흑인뿐 아니라 식민 경험을 한 다양한 사회에서 목격된다. 서구 식민지 관료에 의해 묘사된 태평양 주민이나 네델란드 식민 통치하의 버진 아일랜드인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¹⁰⁾ 미국의 알래스카 원주민의 예는 이러한 기록과 기록생산자, 그리고 기록 대상자 간의 미묘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알래스카 원주민에 대한 최초의 서구민의 기록은 인류학자에 이루어졌으며, 소련으로부터 토지 매입 이후에는 석유 매립에 관심이 있는 정부 관료에 의해 이루어졌다. 현재에는 원주민에 대한 기록은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광 팸플릿과 알래스카 홍보물에서 쉽게 발견된다. 문제는 정작 기록 기술의 대상이 되는 원주민은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히 소외되어있다는 사실이다.¹¹⁾ 그들의 삶과 일상은 이국적 그림과 단편적 이미지에 의해 신비화되어 기록되거나 혹은 서구와 대비되어 열등하거나 미개한 것으로 묘사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은 정부 기관이나 상업 기업, 혹은 학자들의 연구데이터의 일부로 각각의 정책과 논지를 증명하는 증거물로 이용된다. 그러나 이렇듯 기록대상과 유리된 인식체계 속에서 생산되고, 그들과 완전히 소외된 기록생산 체계 속에서 관리되는 기록이 전해주는 진실이란 대단히 한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기록의 생산과 선별 과정에 더해 기록정리 기술 방식에서도 사실상 기록의 왜곡은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개의 경우 주류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록 관리는 종이 중심의 기록 관리 원칙을 강조한다. 기관의 기록들은 일정한 경로를 거쳐 생산되고 체계적으로 이관되고 관리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록에서 생산자와 출처, 원질서, 집합적 관

10) Wareham, Evelyn, "From Explores to Evangelists: Archivists, Recordkeeping, and Remembering in the Pacific Islands", *Archival Science* 2, 2002, 187~207쪽 ; Bastian, Owing Memory: Lee, Shannon, "Racial Classifications in the Us Census: 1890-1990", *Ethnic and Racial Studies* 16, 1993, 75~94쪽.

11) Kurtz, Matthew, "A Postcolonial Archives? On the Paradox of Practice in a Northwest Alaska Project", *Archivaria* 61, 2006, pp. 63~90.

리 등의 원칙을 찾기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기록관리 원칙은 이러한 공공에서 생산되는 종이 기록의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민간 기록의 정리와 기술, 배열의 방식은 그 집단이 사건과 기억을 담아내는 고유한 내러티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류와 질서는 종종 알파벳이나 연대기적 순차를 가진 공공기록의 배열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가치체계나 경험에 기인하여 사건을 기억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공동체의 가치체계와 문화는 정부 관료 조직의 인식체계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영남의 풀무 공동체의 정리 기술의 예는 이러한 관점을 조심스럽게 피력한다.¹²⁾ 풀무 기록 관리 시리즈는, 풀무 모내기, 풀무 애완동물, 풀무 한해(2008년과 2011년), 풀무 여성들, 풀무 정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표준인 ISAD(G)를 따르지 않는다. 공동체 기록에서는 기록 자체 뿐 아니라 기록의 배열과 구성, 기술 방식에 공동체의 경험과 이야기들이 녹아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기억이 배열되고 정리되는 방식은 종종 그들의 기록관리 방식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인식 체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 생산자 고유의 인식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록의 표준화된 정리 기술 방식은 기록 고유의 의미를 파괴하고 형식화시킨다. 네델란드 University of Amsterdam의 Eric Ketelaar는 아카이벌리제이션(Archivalization)으로 명명하며, 아카이브가 기록이 가진 본질적 의미를 보존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평가와 정리, 재배열과 기술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재생산해 내는 장소라고 주장했다.¹³⁾

마지막으로 이용과 서비스의 관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 주류기관에서 민간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기

12) 이영남, 「공동체 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2~31쪽.

13) Ketelaar, Eric, "Archivalization and Archiving?", *Archives and Manuscripts* 27, 1999, pp. 54~61

록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와 의미를 철저히 외면할 위험이 있다. 이는 소외된 공동체의 구성원이 정부 아카이브나 주류 기관의 아카이브를 좀처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정보 접근성의 관점의 논의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주류 아카이브에서 그들이 소유한 공동체 기록에 대해 접근성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공동체의 기록은 영원히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 기관에 보존된 공동체의 기록이나 시민단체의 기록에 대해 정부가 기록에 대한 물리적 통제 장치를 이용하여 기록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제한 할 수 있다. 상이한 정부는 다양한 정보 정책을 표방하고, 기록 정책에 대해서도 상이한 입장을 시도하기 때문에, 공동체 기록은 각기 다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접근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동체의 기록을 정부가 보관하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의 기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공동체의 기록에 대한 접근성과 소유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미국 시몬스 대학(Simmons University)의 기록학 교수인 Jeannette Bastian은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기록은 종종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한다. 그녀는 어떻게 기록 보관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장, 경제적 이익, 혹은 주관적 견해에 따라 기록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는가에 주목했는데,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은 이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¹⁴⁾ Bastian은 1987년부터 1998년 동안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정부 도서관의 책임자로 일하며, 버진 아일랜드의 기록이 어떠한 경로로 생산되고 유통되며, 보존되는지를 직접 목도하며 연구했다.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는 15세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래 서구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세력관계의 각축장이었다.

14) Bastian, Jeannette, *Owing Memory: How a Carib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Westport: Libraries Unlimited, 2003.

지리적 이점으로, 스페인과 네덜란드, 프랑스를 거쳐 다시 네덜란드로 식민통치가 이어지다 1917년 마침내 미국으로 팔렸다. 버진 아일랜드의 토착민들은 이미 17세기 이전에 사라졌으며, 이후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 노예와 죄수들, 다분히 모험적인 이민자들이 대거 정착했다. 빈번히 교체되는 각국의 식민정권들은 버진 아일랜드를 지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록체계에 기반을 둔 식민기록들을 생산해 내었다. 그러나 상충하거나 대립되는 식민 체계 속에서 다양한 기록들은 쉽게 유실되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식민정권과 함께 본토로 이동되었다. 이 때문에 버진 아일랜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기억을 증명해줄 수 있는 현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개의 역사적 기록은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과 미국 등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있고, 각국의 정부는 그들 기록에 대한 파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로 인해 버진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결과 따라 자신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당했다.

Bastian에 따르면, 기록 관리에서 보관자 중심의 사고는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기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공동체의 고통을 방치하고 외면했다.¹⁵⁾ 소외되고 침묵이 강요되어온 사회 내의 여러 집단들은, 종종 자신들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물리적으로 규제당하거나, 혹은 기록의 위치나 상태 정보와 같은 맥락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다.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한 희생은 정치·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기록 관리에서도 종종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누구의 기록을 수집하고 모을 것인가의 문제는 누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소유하며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다양한 공동체가 스스로의 기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기록 관리를 할 때, 그 기록이 가진 본질과 의미를 증진시키며 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을 충

15) Bastian, Jeanette, "A Question of Custody: The Coloni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Virgin Islands", *American Archivist* 64, 2001, pp. 96~114.

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기록 관리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단순히 현재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기억을 보존해 넘겨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 아카이브를 만들고, 각각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기록이 가진 본래적 의미를 가장 잘 유지하고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 몇 가지 더 장점이 있다. 영국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기록학자이자 지방사가(local historian)인 Andrew Flinn은 The Black Cultural Archives(이하 BCA)사례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가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¹⁶⁾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영국의 공공 박물관과 ‘공식’역사서술은 흑인의 이미지가 ‘영국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흑인들을 영국 공식 역사에서 끊임없이 배제시켰다. 주류 역사 교과서는 흑인들이 영국과 서구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고, 흑인 공동체를 역사 서술에서 지속적으로 소외시켰다. 그리하여 영국의 초중고 과정에서 영국 내 흑인 공동체의 존재와 주체적 역할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결과 오랫동안 흑인 아동들은 자신들에 대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뿐 아니라 영국 내 국립 학교에서 공공연히 흑인아동을 차별했다. 아이들은 매번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어 열등하고 문제시되는 아이들로 인식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영국 주류사회의 교육 시스템에 반발한 일부 흑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한 보조학교(supplementary school)를 자체적으로 설립했다. 이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교육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후 영국 흑인 인권 운동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한 흑인 공동체 아카이

16) Flinn, Andrew.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in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ed. Jeannette Bastian and Ben Alexander, London, U.K.: Facet Publishing, 2009.

브의 설립은 1982년, BCA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아카이브는 스스로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해야 했던 흑인 아동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과 흑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캐나다의 성적 소수자 아카이브(the Canadian Lesbian and Gay Archives, 이하 CLGA) 역시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가지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17)캐나다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며, 오랫동안 다문화 공존의식을 강조해왔다. 그 결과, 다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고 인종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몇 안 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캐나다적인 것’에 대해 성적 소수자들은 오랫동안 분명한 예외적 존재들로 취급되었다. 박물관과 도서관, 아카이브들은 그들의 존재를 일체 외면했고 그들의 기록과 지식, 문화적 유산들을 무시했다. 기껏해야 정부기관의 공공 기록만을 수집할 뿐이었다. 그러나 소수집단의 일상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공식 기록이 줄 수 있는 정보란 지극히 왜곡되고 한정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주류의 관점에서 그들은 부정되고 감추어져야 할 억압과 감시의 대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캐나다 성소수자 아카이브(The Canadian Lesbian and Gay Archives, CLGA)는 성적소수자들의 인권과 정체성을 살리는 구심적 역할을 했다.

1977년, 몇몇의 성적 소수자들이 ‘몸의 정치(The Body Politic)’라는 저널을 출판하자 정부는 경찰과 우파 기독교 집단을 앞세워 그들의 아카이브를 급습하고, 12상자 분량의 기록들을 압수하였다. 경찰은 아카이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었고, 급기야 캐나다 신정연휴 기간의 분주함을 틈타 아카이브에 들이닥쳤고, ‘캐나다 형법 164조항(Section 164 of the Criminal Code of Canada)’을 근거로 CLGA를 재판에 회부했다. 그

17) Barriault, Marcel, *Archiving the Queer and Queering the Archives: A Case Study of the Canadian Lesbian and Gay Archives (CLGA)*,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London, UK: FacetPublishing, 2009, pp. 97~108.

후 1983년 캐나다 법원은 모든 기록을 그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했고, 8년이 지나서야 기록들은 아카이브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되려,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각성을 일으키며 아카이브를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위치시켰다. CLGA는 이후 비영리 단체를 선언하고, 그들 공동체를 위한 기록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아카이브임을 발표했다. 현재 CLGA는 전 세계 2위 규모의 성소수자 아카이브로, 캐나다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 성적 소수자를 위한 기록들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성소수자 예술가와 문학인에 관한 컬렉션을 수집하고 전시하고 있으며, 1980년에는 미국 시인 Walt Whitman, 1982년에는 Oscar Wilde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전 세계 동성애 커뮤니티 학술 대회 등을 개최하고 후원하기도 하였는데, 아카이브는 이러한 사회적, 학술적 행사를 통해 점차 공동체가 긍정적인 정체성을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CLGA의 기록물들은 7,000여 점의 이미지를 비롯해, 각종 행사의 포스터, 개인기록, 기관 기록, 정기간행물, 그림, 개인 초상화 콜렉션, 영화(8/12mm, VHS, DVD)와 오디오 테이프, CD, 예술작품, 단추, 깃발, 티셔츠와 기념품들 등 캐나다 동성애자와 연관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¹⁸⁾

3. 공동체란 무엇인가

: 공동체, 기억 공동체, 그리고 기록 공동체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며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찾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의의 다양함과 광범위함에 당황할 것이다.

18) <http://www.clga.ca/>

사회학, 인류학, 행정학과 정치학, 문헌 정보학, 지리학에 이르기까지 현대 학문 분야는 다양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규정했고, 그 용례와 범주의 방대함으로 인해 사실상 하나의 명료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개념이 되었다. 기록학계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표현되는 공동체 현상을 공동의 기록과 기억을 소유한 사람들, 즉 “기억 공동체” 혹은 “기록 공동체”로 불리는 범주를 통해 이해하고자 했다. 기록을 공동체와 그들의 기억을 매개시키는 중재적 역할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는 새로운 기록관리 영역의 복잡함과 다층성을 그대로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록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억 공동체’와 ‘기록 공동체’의 특징과 의미를 짚어 보기로 하겠다.

2005년 호주의 Sue McKemmish와 미국의 Anne Gilliland, 네델란드의 Eric Ketelaar는 Archives and Manuscripts 33호에서 ‘공동체(Community)’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공동체는 정치적, 행정적 혹은 사회적 일체감을 가진 일련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사람들은 그들 주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징들, 예를 들어, 출생이나 종교, 추구하는 목적이나 가치 등을 공유하는데, 대개 시민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다. 예를 들어, 타국에 거주하는 영국인들 혹은 중국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무엇이 공동체인가, 혹은 무엇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학문적 견해는 대단히 다양하다. 공동체의 문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사회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견해도 있다. 이 밖에도 공동체를 상징적 구조물로 보며, 사회적 행위를 통해서 혹은 가치나 규범 체계를 통해 만들어진 구조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개 정치 이론가들과 의사소통 연구자들은 공동체를 시민운동에 관여하는 하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도시 개발자들은

(개발지역의) 토착 지역민으로, 또 다른 이론가들은 글로벌 공동체나 인터넷상의 집단들을 공동체로 보기도 한다.¹⁹⁾

그들에 따르면 공동체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하며 다양한 용례로 쓰일 수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마을이나 도시, 넓게는 국가 역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²⁰⁾ 가장 작게는 개인이 속한 친족도 공동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다. 공통된 취미를 기반으로 한 동아리 모임이나 사회모임 등도 포함되며, 종교나 교육 등의 공통된 세계관과 인식을 가지고 형성된 공동체도 있다. 친족 공동체부터 좀 더 학술적인 연구 공동체, 정치공동체, 종교 공동체와, 또한 지역적인 공동체부터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집단들을 포함한다.

사실상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나라에서 공동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다. 인간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한국의 씨족 공동체에서부터 18세기 영국의 노동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었고 유지해왔다. 고립된 개인으로 살수 없다는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하나이상의 공동체에 속하며 이를 통해 사회화를 경험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는 인간 존재론적 방식의 일부로, 개별적 인간은 이를 통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더불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인류학자이자 공동체 연구자인 Anthony Cohen은 이러한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을

19) McKemmish, Sue, Anne Gilli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z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2005, pp. 146~174.

20) 베네딕트 앤더슨은 민족주의에 관한 저서 상상의 공동체에서는 민족을 공동체의 하나의 범주로 포함시킨다. :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and extended. ed.), London: Verso, 1991, p. 224. "상상의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윤희숙 옮김, 나남, 2004.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한다.²¹⁾ 공동체는 본질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존재 방식과 연관된 것인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실질적인 사회화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문화 내에서 작동하고 있는 여러 규칙들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내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기제들이다. 종종 이는 의례와 상징을 통해 나타나는데, 아카이브는 이러한 그들의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나누고 규정하는 장소인 동시에 그 가치를 관리하고 보존하며 유통시키는 장소이다. Cohen은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은 공통된 그 어떤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그들은 다른 집단과 스스로가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성원들 사이의) 유사성과 (다른 공동체와의) 차이가 그 공동체의 경계를 짓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행정적, 법, 지리적 특성, 언어적 차이, 종교 등 보편적인 경계들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지도에서 보이는 강이나 산, 혹은 길과 돌담과 같은 자연물, 읍, 면, 리로 구별되는 행정권의 차이나 한국인과 외국인 등의 국적의 차이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되는 문화적 조건들, 구체적으로 언어나 종교, 일상적 경험과 취미, 공통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들, 의례와 상징들도 공동체의 경계가 되기도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대학의 축구 동아리나 재즈 음악 연주자들의 모임, 공통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들,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유태인들, 다양한 종교 집단 내에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렇듯, 현실 속에서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의 경계들은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중복되기도 하고, 동시에 독립되어 있다.

공동체 연구자 Peter Willmott은 공동체를 기본적으로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정의한다. 공동체란 종종 지역적 특성을 기

21) Cohen, Anthony,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Community*, England: Ellis Horwood Company, 1985.

반으로 형성되지만, 이외에도 공통된 민족적 배경, 직업과 취미, 정치, 종교 등 공동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²²⁾ Margaret Stacey는 공동체는 지역정보보다 사회 구조에 따라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생성과 소멸을 이해한다.²³⁾ David Lee and Howard Newby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한 정서적, 정신적 공감대에 주목했다. 그들에게 공동체란 대개 동일한 지역성(locality)을 근간으로, 그 지역 사회 시스템에 토대를 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개인들을 일컫는데, 그들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들은 대부분 공동체 외부인들과 구분되는 그들만의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²⁴⁾ 이들 공동체 연구자들에 따르면, 공동체는 종종 구성원 상호 간에 존재하는 관계망에 의해 깊이 의존한다. 구성원들의 삶 속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공동체들이 대개 오랜 시간 지속되며, 궁극적으로 공유의 문화와 가치, 더욱더 중요하게는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Gerald Shuttle은 공동체가 생성되고 유지되는 데는 각 개인과 집단의 의지와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²⁵⁾ 따라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집단과 심리적 일치감을 형성하고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공동체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선호와 관련된 사적인 동인에 의해 결정된다. 소속감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안정된 관계 속에

22) Willmott, Peter, *The Evolution of a Community; a Study of Dagenham after Forty Years*, Reports of the Institute of Community Studies, London: Routledge, 1963 ; Peter Willmott and Michael Dunlop Young, *Family and Class in a London Suburb*, Reports of the Institute of Community Studies 4, London: Routledge.

23) Stacey, Margaret, "The Myth of Community Studi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0, 1969.

24) David Lee and Howard Newby, *The Problem of Sociology*, New York: Newtledge, 1983.

25) Shuttles, Gerald,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mmunit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서 영향을 주고받고자 하는 심리적 상태로 이는 대개 자신과 동일한 삶의 목적과 가치, 취미와 여가를 가지거나 동일한 계급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대학 축구 클럽 멤버, 물리학회 회원, 인터넷 동호회, 전우회와 희생자 유가족 모임, 여성운동, 다문화 공동체와 탈북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공동체를 선택하고 소속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자신과 공통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과 긴밀히 연결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이러한 다양한 개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소속감과 협조로 형성, 유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아키비스트 David Mander는 U.S. Center for Disease Control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진다. 그들은 종종 한 번에 여러 개의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구성원의 내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즉 나이와 젠더, 인종과 민족 등 지극히 개인적인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²⁶⁾ 이러한 그의 언급은 무한히 다양한 공동체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암시인 동시에 그 공동체들의 내적 구조와 특성 역시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 연구에서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이슈는 어떠한 공동체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공동체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들이 유지되는가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산업화고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전통적 공동체가 사라지고, 많은 새로운 공동체가 등장했다. 특히, 디지털 문화와 인터넷의 발달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과 함께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커다란 반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일대일의 만남에 의해서만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개인들과 온라인의 통해 동시에 관계

26) Mander, “Special, Local and About U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Archives in Britain”, p. 32.

맺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인터넷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가상 공동체 (Virtual communities or Online communities)와 그들의 네트워크는 전통적 공동체와는 또 다른 특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흔히 언급되는 게임 공동체들,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이민자 공동체들은 이러한 온라인 공동체들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물리적 지역성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들은 의사소통에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기체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고, 멤버십이나 공지 사항의 전달, 이벤트의 개최 등을 통해 결속을 다진다. 종종, 지역 공동체나 대면적 공동체가 보완 물로써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이용함으로써 온/오프라인에서 공동체 활동이 강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기본적 성격과 종류, 공동체 구성원의 소속감과 정체성에 논의는 현 공동체에 대한 기록학적 관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그럼에도 특히 이러한 다양한 공동체의 광범위한 범주 속에서 서구 기록학이 주목한 공동체의 가치는 종종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기억 공동체('community of memory')는 특정한 집단 기억 혹은 공동의 사회적 기억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를 바탕으로 기록과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Ketelaa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집단 정체성은 기억의 선별과정에 근거해서 형성된다. 그 결과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공통된 과거에 대한 기억을 통해 스스로 공동체 구성원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공동체를 '기억 공동체'라고 부른다. 이때 공통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 전통적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는 개인이 (자발적으로-역자 첨가) 획득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에 더 가깝다. 현재로부터 이어지는 공동체의 공통된 과거는

그들에게 지속성, 일관성, 일체감을 준다. 따라서 가족, 종교 공동체, 직업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곧 그들의 과거에 대해 깊숙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공동체의 과거를 알려주는 기억장치(어떠한 형태로든, 구술과 문자, 혹은 물리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²⁷⁾

기억 공동체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Maurice Halbwachs나 Pierre Nora 등의 기억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특정 기억이 사회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유통되는지 주목한다. 그리하여 종종 기억 공동체는 지배계급의 공식 기억에 대항하는 ‘대항 기억(Counter-memory)’을 가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게 기억이란 개인적인 회상의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기억은 대단히 사회적인 특성을 가진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개별적이고 사적으로 기억하는, 일명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구체적인 정치, 경제적인 체계 내에서 발생하고, 다시 사회구조적인 인식의 틀 안에서 재구성되며, 의미를 부여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기억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가치중립적이며 기계적 재상 과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복잡한 해석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6·25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경험한 군인은 옆에서 죽어가는 전우의 얼굴과 화약의 냄새, 그리고 빗발치는 포탄의 굉음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경험은 20세기 한반도의 정치적 분열, 미국과 소련의 개입, 전선의 유지와 방어라는 전세에 따른 판단과 같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한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다시 각개인의 인식체계 안에서 재해석되며 기억으로 남는다. 즉 그것은 단순히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는 대단히 주관적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의 해석에 깊이 의존한다. 기억 공동체는 이러

27) *ibid.*

한 사건과 기억, 의미와 컨텍스트 간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 존재한다. 기억 공동체는 그들의 의미체계 속에서 집합적 문화를 창출하며, 공동된 과거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집단 정체성을 가진다. Ketelaar에 따르면, “기억 공동체는 행정적·경제적·성적 혹은 인종적 경계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그들의 집단 기억, 공동된 심리, 정체성, 상징, 문화, 역사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요인에 좌우된다”고 설명한다.²⁸⁾ 따라서 이들은 단순한 취미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유대 관계를 형성한 공동체보다 문화적 구속력이 강하다.

기억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억을 담보하는 기록을 생산해 내거나 보관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는다. 때문에 이들은 종종 공동의 기록을 소유한 “기록 공동체(community of records)”로 불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Bastian은 기록 공동체는 개인의 행위에 관한 증거들을 물리적으로 한 공동체내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 이상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록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공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의 기록에 대해서도 공동의 권리와 소유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기록 소유에 대한 생산자의 권리 이외에도, 기억의 주체, 기록의 대상, 기록관리 주체 등 기록의 생산과 소비, 보존과 열람에 관여한 모든 주체들이 하나의 공동체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에 따르면, “기록 공동체는 개별적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기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생산자가 속한 전체 공동체의 맥락 내에서만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복합적 생산 과정의 결과물이다. 개인의 기록들은 기록 공동체의 일부이다. 기록 공동체는 행위와 기록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 정의된다. 이때 행위와 기록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마치 거울 같은 관

28) Sue McKemish, Anne Gilliland, and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z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gendas”, *Archives and Manuscripts* 33, 2005, p. 147.

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록 공동체는 복합적 층위를 가진 행위들에 의해 생산된 모든 형태로 기록의 총합으로서 간주된다.”²⁹⁾ 따라서 기록 공동체는 공통된 기억을 기록을 매개로 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나가는 동시에, 기록 생산, 유통, 보존과 관련되어 공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을 일컫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재론적 방식과 연관되며 사회화의 과정을 결정한다는 Cohen의 분석은 곧 공동체 기록이 그들 삶의 다양한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공동체가 기록과 아카이브를 통해 스스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때 아카이브는 스스로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기억하는 다양한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 스스로가 자신의 기억을 구조화시키고 드러내는 장소라 할 수 있다. 기록학은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공식 역사에서 배제되고, 제도권 아카이브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공동체의 사건과 인물들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다.

4.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함의

캐나다와 미국, 호주 등지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특징들을 가진다. 첫째,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참여와 그들의 가치를 중시한다. 각기 다른 공동체는 주류 계급과는 물론이고 공동체 간에도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기록은 온전히 그들의 경험과 그 해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외부인, 즉 기록학자는, 개별적 공동체의 고유한 인식체계를

29) Bastian, *Owing Memory*, pp. 1~18.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경우 공동체 기록 관리의 과정에 기록 생산자의 참여를 필수적 요소가 된다. 둘째, 공동체 구성원과 아키비스트 간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 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어떻게 공동체 구성원의 기록 관리에 영향을 끼치며, 바람직한 영향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와 아키비스트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할 때 공동체 아카이브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있어 기록관리가 공공기록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공 영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적합한 기록관리 방법론을 찾아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개별 공동체가 가진 경험과 그들의 기록을 존중하며 이들의 기록관리 방법론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기록 관리의 특징은 많은 경우, 개별적 공동체에 대해 혹은 그 기록의 가치에 대해 상대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따라서 공동체 기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획일적인 기준의 일방적인 적용은 지양되며, 대개 공동체 각각의 고유하고 개별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행해진다.

그럼에도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는 특정 사회가 가지는 고유한 역사와 경험, 문화와 사회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각각의 국가는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를 담보한 특정 공동체 연구에 대해 좀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예를 들어, 여성, 성적 소수자, 그리고 이민자 등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제이지만, 노동운동의 역사가 길고, 전통적으로 계급 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경우 노동 계급을 둘러싼 공동체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다.³⁰⁾ 토착 원주민과의 갈등을

30) Flinn, Andrew, "Community Archives and Their Records", In *UCLA Information*

겪고 있는 호주는 원주민 공동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오랫동안 인종 문제와 소수민족(minority)과의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미국의 경우 흑인과 이민자 공동체에 대한 연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이렇듯, 공동체는 한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이슈를 그대로 반영하며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적 공동체는 고유한 인식체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성의 탄생은 결국 공동체가 속한 사회구조의 영향력과 상호교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동체의 역사는 종종 한사회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경험을 하고 어떠한 가치체계를 발전시켜 왔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아카이브가 있고, 이들은 자신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행사와 뉴스들을 제공하고 있다. 19세기 이후 20세기를 거쳐 지속적인 이민의 증가는 급속히 미국사회를 다원화시켰고, 각각의 이민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카이브를 만들었다. 미국 내 다양한 인종과 민족 문제는 흑인 문제와 함께 사회 통합에 관한 중요한 관건이었는데 소수민족 공동체들은 미국 주류사회와 독특한 긴장 관계를 유지했으며, 각각의 민족들이 미국 역사에 편입되는 과정은 그 시대 미국 사회가 처했던 역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이민자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생성, 발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³¹⁾

Studies Colloquium Presentation, Los Angeles, 2011. March, 2th.

31) 일본계미국인 연구센터 (Japanese American Research Center, JARC)도 이러한 이민 공동체 아카이브 중 하나이다. JARC는 미국 내 일본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인 재미 일본인 내셔널 뮤지엄('Japanese American Research Center') 내의 아카이브로, 1982년부터 운영되었다. 1982년 미국 내 일본인 거주지의 상인들과 비즈니스 맨, 태평양전쟁 전우회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로스앤젤레스 시에 의해 경제적 후원을 받아 완성되었다. 아카이브는 일본계 미국인들의 기록과 구술, 예술품과 사진, 일기, 그림, 지도와 오디오, 비디오 녹음, 엽서와 포스터 등 다양한 포맷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으며, 특히 1920년부터 1950년대 생산된 2차 대전에 관한 8mm, 16mm 영화와 다큐멘터리 이미지 30,000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계 미국인들은 세계 2차 대전 중 미국 정부에 의

앞서 언급했듯이,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재개편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기에 연구자들은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나 거대 담론들에 의해 숨겨지고 은폐된 사람들에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사회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가치 체계를 발견하려는 시도는 종종 남성에 대해 여성을, 이성애자에 대해 동성애자를, 백인에 대해 유색인종을 대비시킨다. 공식역사에서 다루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말함으로써 공식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반어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 사회의 주류라고 말할 수 있는 집단의 성격에 대한 규정과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해오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기록

해 ‘내부의 적’으로 규정되어 강제 격리과정을 겪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미국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반일본인 감정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일본의 미서부 지역에 대한 침공 가능성과 일본인들의 간첩행위와 태업 가능성에 대한 과장된 언론 보도는 대중의 병적인 불안과 공포를 낳았다. 미국 정부는 당시 태평양 연안에 거주하고 있던 12만여 명의 일본계 미국인들을 네바다 주 등의 사막으로 강제 수용하였는데, 이들 중 2/3는 미국에서 출생한 합법적인 미국시민이었다. 당시 미국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교전 중이었지만 미국 내 독일계 미국인이나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동일한 강제수용 조치가 내려진 바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 격리의 경험은 일본계 미국인들에게는 더욱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고, 이는 수많은 예술작품과 기록들이 생산들로 이어졌다. 그들의 공동체아카이브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본계 미국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이루어진 JARC는 이러한 모든 문화적, 감성적 기록들을 수집, 관리하고 있었다. 특히 주기적인 기획전 시와 일반전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그들 공동체 역사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동시에 학술 사업의 후원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 하고 있다. 현재에는 미 정부로부터의 후원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후원을 통해, 미국 역사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일본계 이민자들에게 대한 학술 연구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공동체 아카이브는 2차 대전 중의 강제수용이라는 역사적 주제를 비롯해 일본인의 해외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역사기록 수집과, 미국 역사 교육관한 연구 등 영역을 광범위하게 그 영향력을 확장시킴으로서 미국 내 일본계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을 키우고 있다.

관리'를 표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체의 선별의 전환이라기보다는 계급, 성, 인종, 종교, 등 각종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기록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나아가 역사와 사회에서 차별받고 침묵이 강요되어온 사회내의 여러 집단들이, 주어진 삶의 조건에 따라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았음을, 혹은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 역시 사회의 지배 담론과 기득권의 사상적 논리에 맞서 자신들의 주체적 규범과 가치를 지키려는 저항을 해왔던 사람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한 시대를 지배하는 거대담론의 틈새들, 양면적인 것과 모순적인 것 속에 내포된 긴장들에 초점을 기울임으로서 거대한 변화와 논리가 은폐하려했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란, 혹은 역사란 하나의 고정된 시작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일면적인 것이 아니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그 속에 존재하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삶의 단면을 재발견하고 재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이들 거대담론의 틈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내러티브와 공동체의 기억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 국가주의, 민족주의, 자본주의 등의 지배 담론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공식 역사와 아카이브, 박물관과 도서관 등의 문화 기관이 어떻게 이러한 주류 담론을 지지해왔는지에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기록학은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다양한 대안 공동체들, 분단과 냉전의 논리 속에서 정체성이 규정된 공동체들, 글로벌화에 따른 이민자 공동체들, 경제 개발 논리에 의해 존재 자체가 은폐되고 숨겨진 공동체들, 여성과 성적 소수자 공동체 등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기록 관리가 20세기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다양한 인식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

아카이브가 과거의 장소이며 미래를 한 저장고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더해 공동체 아카이브는 우리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현재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며, 이를 통해 그들의 권리와 의미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즉, 새로운 기록 전통의 수립이라는 기록학계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기록의 이관이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에서 기록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현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의 성격을 점차로 띠고 있다. 이는 확실히 단순한 민간 영역으로의 관심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공동체 아카이브는, ‘위에서 아래로’의 중앙집권적 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아래로부터 위로’ 향하는 기록관리 담론의 거시적 관점으로부터 미시적 관점에서의 전환의 시도이며, 나아가 기록 관리를 통해 좀 더 건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캐나다 기록학 연구자인 테리 쿡은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은 이러한 민중의 기억을 되찾고 보존하려는 공공의 열정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회구성원들은 기록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종종 그렇지 못하다. 어떤 목소리는 크고 시끄럽게 우리를 향해 울리지만, 그럴 수 없는 목소리들도 있다. 사회에서 어떠한 사고와 생각들은 특권을 가지고 지배력을 행사하지만, 또한 그렇지 못한 담론들도 존재한다. 어떤 생각들은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무시당한 채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성립은 기록의 특권과 소외를 언급하며, 기록에서 (권력의) 재균형을 찾는 방법이다. 이러한 운동이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사회적 정의에 대한) 공공의 열정이라 할 수 있다.³²⁾

아래로부터의 기록 관리의 실천 방안으로 논의되는 공동체 아카이브는 효율성과 경제성의 논리에 함몰되어있었던 기록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켰다. 서구, 특히 북미의 기록 관리는 지난 세기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로 기록을 이해했고 기록 관리를 발전시켰다. 기록 관리는 기업과 국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기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는 종종 레이건 시대의 산물로 미국적 사고의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는 기록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접근은 기록의 본질과 그것이 인류 전체에 미치는 정신적, 문화적 의미를 간과하게 함으로서 정체성과 역사성에 대한 인식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는 기록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킴으로서, 기록의 본질과 기록 관리의 의미를 새롭게 규정하며 기록학의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32) Cook, Terry, and Joan M. Schwartz, "Archives, Records, and Power: From (Postmodern) Theory to (Archival) Performance", *Archival Science* 2, 2002, pp. 171~185.

ABSTRACT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Youn, Eun-ha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community archive movement, exploring its roots, its variety and the present developments. It will identify limitations of archival principles in managing community records, particularly on the many gaps and insufficiencies for dealing with historically marginalized groups in the contemporary archival infrastructure. Introducing paradigm shifts in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archives, the author examines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rchival community on community archives.

Key words: community archives, community, paradigm shift, collective memory, the community of records, documentation strategy